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나서

무주군, 3월부터 관내 216개 마을회관 대상 서비스 제공

장수군, 21억원 투입 농민 자립역량 강화·농가소득 향상 경제적 기반 마련

장수군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리적·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적 자원을 활용한 주체 형성 및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수군은 레드푸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활력화를 비전으로 내세우

고 RedFood 활성화, 선순환 산업 생태계 확립, 참여조직 주도형 산업화, 지역주민이 행복한 장수 4대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APC), 누리파크 등 지역에 잘 구축된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과 관광 등을 접목해 관내 농산물과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장수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가공 활성화, 장수군 거점 APC 운

영지원, 사과수출단지 조성, 6차 산업 지원센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지속가능한 장수군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민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과 상생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관내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가 대중화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과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와이파이 존을 확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통신망을 구축하고 3월부터는 무주군 관내 216개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회관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통신비 절감과 함께 정보화 서비스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기자

이외에도 무주군은 그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만남의 광장 및 머루와인동굴 등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조성했다. 또한 6개 읍·면, 보건의료원, 도서관 등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박승호 팀장은 "마을회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정보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해 주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최

군정업무보고 청취·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무주군의회가 7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7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022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집행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해양 의원이 '무장애투표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고,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8일부터 11일까지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올해 무주군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

박찬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힘든 시기에 첫 회기를 시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어려운 시기에 낙담한 군민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무주군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외식상품 개발 위한 신청 업소 모집

무주군이 올해부터 무주의 독특한 맛을 살린 먹거리 개발에 본격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무주군의 성향에 맞게 내·외부 고객이 선호하고 다채로운 맛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 무주 외식상품(메뉴)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먹거리 개발에 참여할 음식점을 모집할 계획으로 새로운 외식 상품(메뉴) 개발 진행과 출사가 가능한 총 10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 업소나 세금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무주=전문선기자

영업 중이거나 외식산업 창업 희망자다. 선정 업소는 외식업 관련 전문 용역사와 함께 지역 향토음식 및 전라식품 개발에 본격 나서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나 예비창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팀 또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3월 중 최종 선정된 업소는 기초자료조사에 이은 무주 향토음식, 무주 전라식품(전마, 머루, 호두) 등을 활용한 기존 메뉴 업그레이드, 신메뉴 개발과 레시피 전수 및 교육, 영업환경 개선 및 홍보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앞으로 치루는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가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무장애투표소 설치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7일 열린 제29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선거는 국민의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어떠한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양 의원은 건의문에서 "사회적 약자가 각각 처한 다양성에 문제없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휠체어 비치와 함께 출입구 문턱 제거, 안전한 경사로와 승강기, 낮은 기표소 설치,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양 의원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무장애 투표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투표소의 시설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사전조치를 강구할 것 ▲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환경에 관한 의견청취 및 무장애 투표소 설치지침을 수립할 것 ▲국회가 무장애 투표소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대한민국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도내 시군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진안군 청소년 드림카드는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15세(중학생)에게 월 3만원, 16~18세(고등학생)에게 월 5만원을 포인트 충전카드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2월 가맹점 모집을 시작으로, 3월부터 대상자들이 청소년드림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모집분야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교통수단 관련 시설이다.

진안 관내에 있는 해당 시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대상인 중·고등학생은 오는 3월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사업 시행 착수에 나섰다.

지난 4일에는 가맹점 모집 및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진단하고,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읍·면 업무 담당자 간담회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전액 지원

무주군이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나섰다. 보험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만 87세 미만 농업인으로 총 보험료는 농업인내안전보험(무배당) 기본형(일반형, 개인) 기준 10만 1천 원이다.

이중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만 2백 원으로 농업조합원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7천 2백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 3천 원은 무주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비조합원의 경우엔 무주군이 모두 부담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2월 중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7억 5천여만 원을 투입(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치료, 입원과 수술, 실손, 장애, 사망 등을 보장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추진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총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2022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노출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48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100동이며 비주택 슬레이트는 참고 및 측사에 한해 18동이 지원된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최대 지원금 규모는 주택의 경우 352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붕개량은 300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단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후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가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